

국어  
**문법의**  
**정수**  
워크북







## 차례 contents

1. 음운	004
2. 형태	추후제작예정
3. 문장	추후제작예정
4. 중세국어	추후제작예정



### | 저자 소개

이찬솔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경기도 국어 임용 시험에 합격하여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내세울 경력은 없지만 꾸준히 국어를 공부하며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어 문법의 정수]의 저자 이찬솔입니다!

그동안 문법의 정수와 함께 풀 문제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워크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워크북 제작을 위해 2013~2025년의 모든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최고의 문제만을 엄선했다!"는 말은 좀 거창할 것 같구요, 개념 공부를 하면서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교재의 포인트는 제 코멘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법의 정수도 앞에 있는 학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썼었는데, 이번 워크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순 문제 해설뿐 아니라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고 뭐가 포인트인지 등을 얘기하려 했고, 또한 관련된 어문 규정이나 필요한 추가 개념 설명을 더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 있으면 좋겠어서, 책을 펼쳤을 때 왼쪽에는 문제를 오른쪽에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오른쪽을 종이로 가리고, 문제를 푸신 후에 해설을 보면 더 가치있는 공부 시간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 교재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주실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국어 공부에 맞는 교재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책을 쓰겠습니다.

꿈을 위해 걸어가는 그 길  
함께 걸어가요!

## 국어 문법의 정수 워크북

펴낸날 | 2026년 1월 7일

지은이 | 이찬솔

e-mail | sol8250@naver.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ol8250>



※ 책의 오타나 오류, 개선할 점 등 여러분들의 소중한 다양한 의견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 음운 - 기본 개념

## (03)

고3 - 2018년 수능 11번  
정수 - p.18

### (01)

고1 - 2023년 3월 13번  
정수 - p.18

<보기>의 '학습과제'를 바르게 수행하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학습 자료]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특정 언어에서 어떤 소리가 음운인지 아닌지는 최소 대립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소 대립쌍이란,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한다. 예를 들어, 최소 대립쌍 '감'과 '잠'은 [ㄱ]과 [ㅈ]의 차이로 인해 의미가 구별되므로 'ㄱ'과 'ㅈ'은 서로 다른 음운이다.

[학습 과제]  
앞사람이 말한 단어와 최소 대립쌍인 단어를 말해 보자.

① 꿀    ② 답    ③ 들    ④ 말    ⑤ 풀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쉬리, 마루, 구실, 모래, 소리, 구슬, 머루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 모양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ㅁ
중모음	ㅑ	ㅕ	ㅓ	ㅗ
저모음	ㅓ		ㅕ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을 확인할 수 있군.

- ① 2개의 전설 모음                      ② 2개의 중모음
- ③ 3개의 평순 모음                      ④ 3개의 고모음
- ⑤ 4개의 후설 모음

### (02)

고3 - 2014년 예비시행A 11번  
정수 - p.17, 29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밭'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 (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 (불, 불) ○ 종성을 바꾼 경우 (밥,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눈</th> </tr> <tr> <td>길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td> <td>짧게 발음할 때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td> </tr> </table>	눈		길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짧게 발음할 때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눈					
길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짧게 발음할 때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음운 파트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다뤘던 내용이 바로 음운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운과 함께 최소 대립쌍, 변이음 등의 개념도 다뤘었죠. 이들 개념은 음운 파트를 공부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개념임과 동시에 실제로 수능에서까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 어렵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면서 음운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문제에 써있는 출제년도는 학년도 기준이 아니라 실제 모의고사가 치러진 년도와 달을 적었습니다.

**(01) 문제 해설 - 정답: 3번**

이 문제는 음운 개념이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실었습니다. [학습 자료]의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와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인해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쌍'이라는 음운과 최소 대립쌍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음운 파트에서는 단순히 음운 변동에 대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사람의 '달'과 하나의 음운이 다르면서 동시에 뒷사람의 '굴'과도 하나의 음운이 다르기 위해서는 '둘'이 와야 합니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02) 문제 해설 - 정답: 2번**

이 문제는 (01)문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문제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01)문제는 음운에서 '음소'만 다뤘다면 이 문제는 '운소'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듯이 음운이라는 것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는 우리가 문자로 쓸 수 있는 음소(자음, 모음)뿐 아니라 문자로 쓸 수 없는 운소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죠.

(ㄱ)은 자음과 모음을 바꾸고 있으니 음소에 대한 것을 말하고, (ㄴ)은 '눈'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운소에 대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소와 운소는 모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고 있죠. 정답은 ②번입니다.



**한술샘의 추가 설명 - 양적/질적 대등성**

[국어음운론강의(이진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글 표기에 장단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 최소 대립쌍을 설정할 때 장단을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ㄱ'과 'ㄴ'에 의한 최소 대립쌍의 예로 '곰'과 '봉'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곰'은 장음이고, '봉'은 단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곰'과 '봉'은 두 가지의 소리가 다른 셈이니 최소 대립쌍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양적 대등성과 질적 대등성인데 같은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대립쌍을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없지 않다. (...) 양적 대등성과 질적 대등성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양적 대등성은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두 단어의 음운 개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 '알'과 '말'이 최소 대립쌍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질적 대등성은 최소 대립쌍을 만드는 두 소리의 성질이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 음소는 음소끼리, 운소는 운소끼리 최소 대립쌍을 이루어야 하며 (...)

위에서의 '곰'과 '봉'은 애초에 2개의 소리가 달라 최소 대립쌍을 설정하는 기본 전제부터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양적 대등성을 결코 넘어지는 경우는 저도 종종 학교 시험에 출제하곤 합니다. '운-눈' 이런 식으로요. '운'의 '운'은 음가가 없는 것이니까 음운의 개수가 '2개-3개'로 양적 대등성을 충족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는 아마 학교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비록 명시적으로는 양적 대등성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출제 원리를 따져보면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출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질적 대등성은 운소를 토대로 최소 대립쌍을 만드는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 - 발'에서 앞의 '발'은 사람의 발이고, 뒤의 '발'은 중국집에 가면 있을 법한 구슬이 꿰어진 가림막을 말하죠. 이때 보면 음소는 그대로고 운소인 소리의 길이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질적 대등성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언제가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03) 문제 해설 - 정답: 3번**

이 문제는 최소 대립쌍이란 개념이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어음운론강의(이진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어와 같이 이미 음소 분석이 끝나서 음소 목록이 확정된 언어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언어는 음성적으로 다른 소리들이 있을 때 이들이 별개의 음소인지 아니면 한 음소의 변이음인지를 판별해야 한다. 음소 분석에서는 흔히 최소 대립쌍과 상보적 분포 개념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마루'와 '머루'를 놓고 최소 대립쌍을 설정해서 살펴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가지고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들 장난처럼 쉽죠. "'ㄹ'랑 'ㄷ'랑 다른 소리잖아~ 그거 때문에 뜻이 달라졌으니까 'ㄹ'랑 'ㄷ'는 서로 다른 음소네~" 이렇게요. 그런데 문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어떨까요? 단어들을 직접 입으로 발음해 가면서 어떤 지점에서 나는 소리가 차이가 나는지 살펴야겠죠. "입술에서 나는 소리 뒤에 나오는 소리가 조금 차이가 있어.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리값도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소리는 같은데 이 소리만 다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바뀌었으니 이걸 음소로 확정지면 되겠어." 뭐 이런 식이지 않을까요? ㅎㅎ

최소 대립쌍의 이러한 역할에 대한 설명은 문법 개론서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실제 문제에서도 언급되어서 이 문제를 보았을 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 모의고사도 아니고 수능에서 말이죠! 이 문제에서는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라고 나오고 있네요.

[A]에서 최소 대립쌍을 찾으면 '쉬리-소리', '마루-머루', '구슬-구슬'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③번입니다. 3의 평순 모음이 아니라 'ㅣ, ㅡ, ㅏ, ㅑ' 4개의 평순 모음이죠.







음운 변동은 최대한 개별적인 변동을 다룬 문제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음운 변동과 관련된 어문 규정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간혹 주어진 지문에서 이러한 어문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른 해설의 경우에는 특별히 실을 필요가 있을 때만 함께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운 파트에서 문제를 풀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단어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입니다. 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성을 들여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념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04) 문제 해설 - 정답: 4번

이 문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단독으로 다룬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받침에서 소리날 수 없는 자음이 올 경우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㉔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예사소리 중에서도 'ㅅ, ㅈ'과 같은 자음은 'ㄷ'으로 교체되기 때문이죠. 정답은 ㉔번이었습니다.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 8항\_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 9항\_받침 'ㄱ, ㅋ, ㆁ', 'ㅅ, ㅆ, ㅈ, ㆁ',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해설) 이처럼 음절 종성에서 발음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자음들은 모두 장애음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장애음에 대립되는 자음 부류는 공명음이며 비음과 유음이 여기에 속한다. 공명음은 종성에 놓여도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즉 'ㄴ, ㄹ, ㅁ, ㅇ'은 종성에서도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어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7개의 자음은 장애음 3개(ㄱ, ㄷ, ㅂ)와 공명음 4개(ㄴ, ㄹ, ㅁ, ㅇ)이다.

◦ 13항\_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웃이[오시], 앞으로[아프르]

◦ 15항\_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발 아래[바다래], 헛웃음[허두슴], 맛없다[마뎡따]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신평], [머신평]로도 발음할 수 있다.)

(해설) 제13항, 제14항과 비교할 때, 받침을 가진 말 뒤에 오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로 받침의 발음 양상도 달라진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음이 되지 않는 대신, 받침이 대표음인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뀐 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연음과 대비하여 짚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젓어미, 겉웃'의 '젓, 겉'과 같은 홀받침을 가진 말의 경우 대표음 중 하나로 바뀐 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여 '[저더미], [거뎡]'이 된다. '값있다'의 '값'과 같이 겹받침을 가진 말은 자음이 하나 탈락하여 대표음으로 바뀐 후 역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여 '[가빈따]'가 된다.

(더 알아보기) '맛있다[마신평/마신평], 멋있다[머신평/머신평]'의 두 가지 표준 발음 중 [마신평]과 [머신평]의 경우 받침 'ㅅ'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 [ㄷ]으로 발음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맛이 있다, 멋이 있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맛이 있다, 멋이 있다'의 경우 '맛, 멋' 뒤에 형식 형태소인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으므로 연음이 되어 [마시 신평], [머시 신평]가 되며 이것이 줄어들어 [마신평], [머신평]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단어 내의 경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맛있다', '멋있다'는 '맛/멋'과 '있다'가 결합한 합성어이지만, 사람들이 '맛있다', '멋있다'를 내부에 경계가 없는 한 단어로 인식하여 [마신평], [머신평]로 발음한다고 보는 것이다.

⇒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은 15항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종성에 자음이 오는 경우 나타나는데요. 이때 음절이 종성에 놓이는 경우의 수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재에서는 3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첫째 단독으로 발음될 때, 둘째 뒤에 자음이 올 때, 셋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입니다. 이 중에서 셋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13항처럼 형식 형태소인 모음이 오면 그냥 연음이 되지만 15항처럼 모음이라든가 그것이 실질 형태소가 온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에 연음이 됩니다. 이를 교재에서는 음절이 분단이 된다고 했는데 어문 규정에서는 이를 짚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조항의 예외로 '맛있다, 멋있다'에 대해 (더 알아보기)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문 규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설 외에도 추가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론서에 있을 법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맛있다, 멋있다'에 대한 내용은 그냥 한 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 (05) 문제 해설

이 문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어떤 것들과 함께 엮여서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문의 첫 문단에서 나오는 '음절 구조 제약'과 '중세 국어에서의 받침 발음'에 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재에서 여러 음운론적 제약을 다뤘었는데, 이 중에서 문제와 엮여서 나올 수 있는 제약으로는 음절 구조 제약이 가장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처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뿐 아니라 자음군 단순화와도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세 국어와의 차이점도 있기에 중세 국어를 되도록 한 문제는 출제하려는 평가원 입장에서는 다루기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중세 국어를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문제를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문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천천히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 찬솔쌤의 추가 설명 - 음운론적 제약

어떤 언어이든지 모든 음소를 자유롭게 배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4)문제의 '부엌'에서 'ㅋ'이 받침에서 절대 발음될 수 없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을 '제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약이 음소나, 음절 등과 같이 음운 파트의 단위나 구조, 배열에 적용된다고 해서 이를 음운론적 제약이라고 합니다.

음운론적 제약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2가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 1. 음소 배열 제약

-음소들 간의 배열에 제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ㄹ' 뒤에는 'ㄴ' 올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 2. 음절 구조 제약

-음절을 구성하는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한 제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다룬 것처럼 종성에는 최대 1개의 자음과 올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음운론적 제약이 중요한 이유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중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한 음소 배열 제약으로 인해 순행적 유음화나 'ㄹ' 탈락이 일어나고, 음절 구조 제약으로 인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죠. 교재에는 더 많은 음운론적 제약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추가적인 내용은 교재에서 확인해 주세요!

(06)

고1 - 2015년 6월 11번  
정수 - p.34, 37

<보기>는 자음 동화와 관련한 국어 수업의 한 장면이다. ㉠, ㉡에 들어갈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선생님: 두 개의 자음이 이어서 소리가 날 때, 소리 내기 쉽도록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소리를 닮거나, 서로 닮는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을 '자음 동화'라고 합니다.  
다음 현상이 일어나는 예를 찾아볼까요?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의 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
비음 'ㄴ'이 유음 'ㄹ' 앞뒤에서 'ㄹ'로 바뀌는 현상	㉡

- |            |          |
|------------|----------|
| ㉠          | ㉡        |
| ① 먹물[명물]   | 중력[중녁]   |
| ② 국밥[국빡]   | 설날[설랄]   |
| ③ 입는[임는]   | 막내[막내]   |
| ④ 답는[단는]   | 권리[꺠리]   |
| ⑤ 숨이불[숨니불] | 물난리[물랄리] |

(07)

고1 - 2023년 6월 13번  
정수 - p.37

<보기>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활동]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자료]와 연결해 보자.  
신라, 칼날, 생산량, 물난리, 불놀이

[자료]

㉠ 'ㄹ'의 앞에서 'ㄴ'이 [ㄹ]로 발음되는 경우  
㉡ 'ㄹ'의 뒤에서 'ㄴ'이 [ㄹ]로 발음되는 경우  
㉢ 'ㄴ'의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

- ① '신라'는 ㉠에 따라 [실라]로 발음하는군.  
② '칼날'은 ㉡에 따라 [칼랄]로 발음하는 군.  
③ '생산량'은 ㉢에 따라 [생산냥]으로 발음하는군.  
④ '물난리'는 ㉠, ㉡에 따라 [물랄리]로 발음하는군.  
⑤ '불놀이'는 ㉡, ㉢에 따라 [불로리]로 발음하는군.

(08)

고3 - 2019년 7월 12번  
정수 - p.37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에서 'ㄴ'과 'ㄹ' 소리를 연달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ㄹ'과 'ㄴ'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ㄴ'과 'ㄹ'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순행적 유음화나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용언의 활용이나 합성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아닌 'ㄹ' 탈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행적 유음화가 아닌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 |       |     |
|-------|-----|
| ㉠     | ㉡   |
| ① 산란기 | 표현력 |
| ② 줄넘기 | 입원료 |
| ③ 견단력 | 생산량 |
| ④ 의견란 | 향신료 |
| ⑤ 대관령 | 물난리 |



비음화와 유음화는 정말 자주 나오는 음운 변동이니 반드시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4가지로 나눠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비음화, 'ㄹ'의 비음화, 역행 비음화, 순행 유음화입니다. 제대로 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져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 이번 세 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공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6) 문제 해설 - 정답: 4번**

문제를 풀기전에 위에서 말한 4가지를 표로 정리해서 살펴 볼까요?

ㄹ - ㄴ	ㄴ - ㄹ
순행 유음화 ex) 칼날[칼랄], 물놀이[물로리]	역행 유음화 ex) 신라[실라], 난로[날로]
'ㄹ' 탈락 어간, 어미에서 일어나는 현상 ex) 울- + -니 → 우니	'ㄹ'의 비음화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 ex) 음운론[음운논]

'ㄹ-ㄴ'이 만날 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ㄹ'이 탈락되는 경우는 어간, 어미일 때라 헷갈릴 일이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ㄴ-ㄹ'일 때입니다. 두 음운 변동 중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냐하는 것은 확실한 규칙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교재에서도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고 '분리가능성'에 따라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했죠. '음운론'의 경우 '음운', '론'으로 쉽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ㄹ'의 비음화가 적용되어 [음운논]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보면 ㉠은 비음화, ㉡은 유음화를 말합니다. ㉠의 '중력'은 'ㄹ'의 비음화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의 '국밥'은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죠. ㉢의 '막내'는 비음화가 나타나고, ㉤의 '솜이불'은 'ㄴ' 첨가가 나타나서 오답입니다. 정답은 ㉣번이네요. '물난리'는 역행 유음화와 순행 유음화가 모두 나타났네요. '물-난'에서는 순행 유음화가 나타나고, '난-리'는 분리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역행 유음화가 나타나서 [물랄리]가 됩니다.

**(07) 문제 해설 - 정답: 5번**

이 문제가 왜 이 개념들이 함께 나왔을 때 헷갈리는지를 잘 보여 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하지 않고 그냥 쉽게 풀어버려고 접근하면, 'ㄹ'과 'ㄴ'이 막 어지럽게 나와서 막상 그리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ㅎㅎ

<보기>를 보면 ㉠은 역행 유음화, ㉡은 순행 유음화, ㉢은 'ㄹ' 비음화입니다. ㉠의 '신라'는 역행 유음화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의 '칼날'도 순행 유음화가 적용되는 게 맞죠. ㉢'생산량'은 '생산'과 '량'으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ㄹ' 비음화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물난리'는 앞선 문제에서 설명했듯 역행 유음화와 순행 유음화가 모두 적용됩니다. 정답은 ㉤번이었네요. '불놀이'는 '불-놀'에서 순행 유음화만 적용이 되죠. 'ㄹ'의 비음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08) 문제 해설 - 정답: 4번**

이 문제의 <보기>에서는 앞서 표로 정리한 그 내용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문제들과 다른 점은 선지에 발음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선지를 하나씩 분석해 보죠.

- ① 산란기[살란기] → '산-란'은 쉽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역행 유음화가 나타납니다.  
표현력[표현력] → '표현'과 '력'으로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ㄹ'의 비음화가 나타납니다. 정답이네요.
- ② 줄넘기[줄럼기] → 'ㄹ-ㄴ' 연쇄에 순행 유음화가 나타납니다.  
입원료[이원료] → '입원'과 '료'로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ㄹ'의 비음화가 나타납니다.
- ③ 결단력[결탄력] → '결단'과 '력'으로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ㄹ'의 비음화가 나타납니다.  
생산량[생산량] → '생산'과 '량'으로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ㄹ'의 비음화가 나타납니다.
- ④ 의견란[의견난] → '의견'과 '란'으로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ㄹ'의 비음화가 나타납니다.  
향신료[향신료] → '향신'과 '료'로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ㄹ'의 비음화가 나타납니다.
- ⑤ 대관령[대괄령] → '관-령'은 쉽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역행 유음화가 나타납니다.  
물난리[물랄리] → '물-난'에서는 순행 유음화가, '난-리'에서는 역행 유음화가 나타납니다.



[표준 발음법] 제5장\_음의 동화  
○ 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  
(1) 난로[날로], 광한루[광할루]  
(2) 칼날[칼랄], 줄넘기[줄럼기]

[붙임] 첫소리 'ㄴ'이 'ㅎ', 'ㅍ'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닿는[달른], 뚫는[뚫른], 할네[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탄력], 공권력[공권력],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레], 횡단로[횡단노], 이원료[이원노]  
입원료[이원노], 구근류[구근류]

(해설) 이처럼 'ㄴ'이 'ㄹ' 앞에 올 때 상이한 두 가지 음운 변동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즉 어떤 경우에 'ㄴ'이 'ㄹ'로 바뀌고 어떤 경우에 'ㄹ'이 'ㄴ'으로 바뀌는지가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대체로 '의견-란, 생산-량' 등과 같이 'ㄴ'으로 끝나는 2음절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에는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난로, 신라' 등과 같이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한자들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는 'ㄴ'이 'ㄹ'로 바뀌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 해설에서처럼 역행 유음화와 'ㄹ'의 비음화는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네요.  
한편 [붙임]은 혹시나 문제에서 나올까 하여 함께 실어봤습니다. 'ㄹ-ㄴ' 연쇄에서 어간, 어미에서는 'ㄹ' 탈락이 된다고 했죠? '닿는'을 보면 'ㅎ' 탈락이 나타나서 '닿는→달는'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ㄹ'이 탈락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 순행 유음화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순행적 유음화는 반드시 'ㅎ, ㅍ'처럼 'ㄴ'로 시작하는 결합체에서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문법 개론서에서 중세 국어와 함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중등 문법에 어울리지 않아 여기서는 제외했습니다.

(09)

고1 - 2016년 6월 11번  
정수 - p.38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음운 현상이다. 된소리되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유형
- 어간 받침 ‘ㄴ(Lx), ㅁ(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유형 .....㉠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결합되는 자음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유형 .....㉡

- |   |    |        |
|---|----|--------|
|   | ㉠  | ㉡      |
| ① | 신다 | 굴곡(屈曲) |
| ② | 앉다 | 불법(不法) |
| ③ | 넓다 | 갈등(葛藤) |
| ④ | 담다 | 발전(發展) |
| ⑤ | 끓다 | 월세(月賃) |

(10)

고1 - 2022년 11월 14번  
정수 - p.39

다음은 문법 학습지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구개음화: 받침의 ‘ㄷ’, ‘ㅌ’이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1. ‘끝인사’의 표준 발음이 [끄딘사]인 이유를 알아보자. ‘끝인사’에서 ‘끝’의 받침 ‘ㅌ’ 뒤에 ‘ㅣ’로 시작하는 ( ㉠ )가 오기 때문에 [끄딘사]로 발음된다.
2. ‘곧이’와 ‘곧이어’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곧이’의 ‘-이’는 부사를 만들어 주는 접사이다. 따라서 ‘곧이’의 표준 발음은 ( ㉡ )이다. ‘곧이어’의 ‘이어’는 ‘앞의 말이나 행동 따위에 잇대어’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다. 따라서 ‘곧이어’의 표준 발음은 ( ㉢ )이다.

- |   |        |      |       |
|---|--------|------|-------|
|   | ㉠      | ㉡    | ㉢     |
| ① | 실질 형태소 | [고지] | [고지어] |
| ② | 실질 형태소 | [고디] | [고지어] |
| ③ | 실질 형태소 | [고지] | [고디어] |
| ④ | 형식 형태소 | [고디] | [고지어] |
| ⑤ | 형식 형태소 | [고지] | [고디어] |

(11)

고2 - 2011년 11월 12번  
정수 - p.39

<보기>는 '구개음화'에 대한 탐구과제를 수행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탐구과제** :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 국어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 현상을 검토하시오.

**기본 자료**

굳이[구지],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  
→ ‘ㄷ, ㅌ’은 ‘ㅣ’모음 앞에서 ‘ㅈ, ㅊ’으로 발음된다.

**심화 자료**

㉠ 붙여[부쳐], 단혀[다쳐]  
 ㉡ 마디(筋)[마디], 티[티]  
 ㉢ 미닫이[미다지], 날낱이[난나치]  
 ㉣ 훌이불[훈니불], 발이랑[반니랑]  
 ㉤ 묻히다[무티다 → 무치다], 갇히다[가티다 → 가치다]

**심화 자료를 통한 검토 내용**

㉠ : 구개음화는 모음 ‘ㅣ’뿐만 아니라 ‘ㅟ’ 앞에서도 일어난다. ... ①  
 ㉡ : 구개음화는 한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 ②  
 ㉢ : 구개음화는 두 번째 음절 이후에서도 일어난다. .... ③  
 ㉣ :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에도 일어난다. ... ④  
 ㉤ : 구개음화는 두 자음이 하나로 축약된 다음에도 일어난다. ... ⑤



사실 문법 문제를 풀다보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개념을 잘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어떤 개념을 바로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죠. 정말 높은 확률로 다루고 있는 개념에 대한 정보를 그냥 다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도 그렇구요. 그럼에도 우리가 문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된소리되기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왼쪽의 (09)문제는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문학이나 문학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게 되고 국어 성적 자체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문법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더라도 필요한 정보는 다 문제 속에 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열심히 풀어야겠죠? ㅎㅎ

### (09) 문제 해설 - 정답: 4번

이 문제는 된소리되기를 단독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 ㉡에 해당되는 예를 찾는 간단한 문제죠. 교재에서는 된소리되기를 4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 비음 뒤의 경음화
-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 한자어에서 유음 뒤의 경음화

이에 따라 보면 ㉠은 비음 뒤의 경음화를 ㉡은 한자어에서 유음 뒤의 경음화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에서 ㉠, ㉡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정답이 ④번인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 제6장. 경음화

○24항.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신고[신꼬], 앓고[안꼬], 앓다[안따]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안기다, 감기다, 굶기다

(더 알아보기) 이 조항에서는 'ㄴ' 뒤의 경음화와 'ㅁ' 뒤의 경음화를 'ㄴ(ㄴ)'과 같이 하나로 묶어 놓았다. 이것은 흘받침인 'ㄴ'이든 겹받침인 'ㅁ'이든 모두 음절 종성에서는 [ㄴ]으로 발음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ㄴ' 뒤에서의 경음화와 'ㅁ' 뒤에서의 경음화는 차이가 있다. 'ㅁ' 뒤의 경음화는 실제로는 'ㄷ'에 의한 경음화이다. 겹받침의 일부인 'ㅁ'이 탈락하기 전 대표음 'ㄷ'으로 바뀐 후 그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ㅁ' 뒤에서의 경음화는 제23항에서 규정하는 'ㄱ, ㄷ, ㅂ' 뒤의 경음화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다만 'ㅁ'이 표면적으로는 음절 종성에서 [ㄴ]으로 발음된다는 측면을 중시하여 이 조항에서는 'ㅁ' 뒤의 경음화와 'ㄴ' 뒤의 경음화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 이 부분은 교재에서도 따로 다뤘을 만큼 중요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순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 1. 유기음화

2. 음절의 끝소리 규칙 → 4. 자음군 단순화 → 5. 비음화, 유음화 (평파열음화)

#### 3. 된소리되기

우리가 배웠던 순서대로라면 '앓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발음이 됩니다. '앓고→안고→안꼬→[안꼬]'.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단순히 문법 개론서뿐만 아니라 [표준 발음법]에도 실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예로는 '넓게[널께], 할다[할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른 24항의 바로 다음 조항인 25항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겹받침 'ㄹ, ㄹ'은 음절 종성에서 [ㄹ]로 발음된다. 그래서 자칫 이 조항

에서 보이는 경음화가 종성의 [ㄹ] 뒤에서 일어난다고 오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 살-'과 같이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해석은 합리적이지 않다. 학술적으로는 겹받침 'ㄹ, ㄹ'의 경음화는 'ㄹ, ㄷ(ㄷ)'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제23항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다. 다만 제23항의 경우 받침이 종성에서 [ㄱ, ㄷ, ㅂ] 중 하나로 발음되는 데 비해 'ㄹ, ㄹ'은 종성에서 [ㄹ]로 발음되기 때문에 별개의 조항으로 분리하였다. 이것은 앞선 제24항에서 'ㅁ' 뒤의 경음화를 'ㄷ' 뒤의 경음화로 보지 않고 'ㄴ' 뒤의 경음화와 동일한 태도와 ㄹ을 같이한다."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예시가 바로 '흠다[흠따]'같은 경우입니다. ebs교재나 모의고사만 보더라도 이에 대해 '흠다→흠다(자음군단순화)→흠따(된소리되기)'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흠다'에서 'ㄹ' 뒤에서 된소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09)문제에서 봤지만 된소리되기 규칙을 보면 'ㄹ' 뒤에서 된소리가 되는 경우는 'ㄹ'이 관형사형 어미이거나 한자어일 때뿐입니다. 따라서 '흠다'는 '흠따'가 될 수 없죠. 그러려면 '흠다→흠ㄷ다(음끝)→흠ㄷ따(된소리되기)→흠따(자단)'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운 변동의 순서는 같은 환경이라면 모두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단어마다 순서가 다르다고 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고 논리적인 설명이죠. 이 부분은 뒤에서 관련 문제를 풀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10) 문제 해설 - 정답: 3번

이 문제는 구개음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인 형식 형태소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역시나 기초, 기본입니다!

'끝인사'의 '인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나타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곧이어'의 '이어'도 실질 형태소라서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반면 '곧이'의 '-이'는 접사로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나타나 [고지]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입니다.

### (11) 문제 해설 - 정답: 4번

이 문제는 고2 모의고사 문제다보니 앞선 문제보다 정보를 제한적으로 주고, 거꾸로 예시를 통해 구개음화의 특징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화 자료를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 'ㄱ'에서도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ㄱ'이 'j+ㄱ'이기 때문에 반모음 앞이라는 구개음화가 나타날 조건을 충족합니다.

㉡: '굳- + -이', '갈- + -이', '불- + -이 + -다'처럼 분석되는데 이렇게 형태소 경계에서 'ㄷ, ㅌ'와 'ㄹ, j'가 만날 때 구개음화가 나타납니다. '마디', '티'는 한 단어로, 형태소 경계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구개음화는 첫 번째 음절에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 '이불', '이랑'은 실질 형태소로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이 아닙니다. 'ㄴ' 첨가가 일어납니다. 정답은 ④번입니다.

㉤: 먼저 받침의 'ㄷ'과 'ㅎ'이 축약되어 'ㅌ'이 되고 다시 'ㄹ' 앞에서 'ㅌ'으로 구개음화를 겪게 됩니다.



(12)

교2 - 2021년 3월 15번  
정수 - p.43, 56

<보기>의 ㉠이 일어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등이 있는데, 용언의 활용에서 단모음과 반모음이 만날 때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모음의 음운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음 종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단모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반모음 : ㅛ, ㅜ/ㅠ
- 이중 모음(반모음 + 단모음) : ㅟ, ㅠ, ㅡ, ㅢ, ㅣ, ㅤ...

예를 들어 '오- + -아'가 [와]로 되는 음운 변동을 설명하면,

	(변동 전)	(변동 후)
오- + -아	→ [와]	ㅏ + ㅏ

와 같이 교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변동 전	변동 후
① 뛰- + -어 → [뛰여]	ㅓ + ㅓ	ㅓ + ㅓ
② 살피- + -어 → [살피]	ㅣ + ㅓ	ㅓ
③ 치르- + -어 → [치러]	ㅡ + ㅓ	ㅓ
④ 끼- + -어 → [끼여]	ㅣ + ㅓ	ㅣ + ㅓ
⑤ 자- + -아서 → [자서]	ㅏ + ㅏ	ㅏ

(13)

교3 - 2021년 9월 11번  
정수 - p.4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령, 어간 '오-'와 어미 '-아'가 결합해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ㅏ'가 반모음 'ㅛ'로 교체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의 반모음은 'ㅛ'도 있으니까 반모음 'ㅛ'로 교체되는 예도 있겠죠? 그럼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 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ㅛ'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 : 네, (                      ㉠                      )로 발음되는 예를 들 수 있어요.

- ① 어간 '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뛰여]
- ②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해 [차도]
- ③ 어간 '잠그-'와 어미 '-아'가 결합해 [잠가]
- ④ 어간 '견디-'와 어미 '-어서'가 결합해 [견더서]
- ⑤ 어간 '키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키워라]

(14)

교3 - 2022년 3월 35번  
정수 - p.46

<보기>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활동]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자료]에 근거하여 탐구해 보자.

          훤이[훤치]    훤어[훤터]    었는[언는]

          끓고[끓코]    끓는[끓른]

[자료]

-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 비음화나 유음화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
-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구개음화되거나 뒤의 자음과 그다음 음절의 처음에 놓인 자음이 축약되면 일어나지 않음.
- 자음군 단순화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와서 뒤의 자음이 연음되면 일어나지 않음.

- ① '훤이[훤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와서 'ㅄ'이 'ㅆ'으로 교체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군.
- ② '훤어[훤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와서 'ㅄ'이 연음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군.
- ③ '였는[언는]'은 'ㄴ' 중 뒤의 자음인 'ㄷ'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난 것이군.
- ④ '끓고[끓코]'는 'ㅎ'과 그다음 음절의 'ㄱ'이 축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군.
- ⑤ '끓는[끓른]'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남은 'ㄹ'로 인해 'ㄴ'이 'ㄹ'로 교체된 것이군

**(12) 문제 해설 - 정답: 2번**

이 문제는 반모음화가 음운 변동의 유형 중에서 교체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시로 든 '오- + -아'를 보면 'ㄴ'이 반모음 'w'로 교체가 된 후 '-ㅏ'와 결합되어 이중모음 '과'가 되죠. 그런데 이 현상을 아주 예전 교과서에서는 축약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ㄴ'과 'ㅏ'가 축약이 일어나서 '과'가 된다는 식이죠. 일반적인 축약은 [a+b→c]와 같은 식인데 반모음화는 [a+b→a'b]이기 때문에 축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지를 보겠습니다. 정답만 먼저 보자면 ②번입니다. '살피-'의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된 후 'ㅣ'와 결합하여 이중모음 '키'가 되었네요.

①, ④는 전설 모음 뒤에서 반모음 'j'가 첨가가 되는 반모음 첨가입니다. ③은 'ㅡ' 탈락, ⑤는 'ㅏ / ㅣ' 뒤 동일 모음 탈락입니다. 이를 잘 분석하지 못했다면 교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문제 해설 - 정답: 5번**

이 문제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반모음화가 교체라는 것이 문제에 잘 드러나 있어서 실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보면 단모음 이 반모음 'w, j'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답을 먼저 찾아보면 ⑤번입니다. '키우-'의 '우'가 반모음 'w'로 교체된 후 'ㅣ'와 결합하여 이중모음 '귀'가 되었습니다.

①, ④는 반모음 첨가, ②는 'ㅏ / ㅣ' 뒤 동일 모음 탈락, ③은 'ㅡ' 탈락입니다. 위 문제와 비교해보면 똑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게 보이죠? ㅎㅎ 음운 변동은 이처럼 보통 함께 나오는 음운 변동의 짝이 있기도 합니다.

**(14) 문제 해설 - 정답: 1번**

이 문제는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과거 문법 교과서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함께 실렸던 만큼 일어나는 환경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동일합니다. 자음이 음절 종성에 놓이는 3가지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죠.

한편, (09)번 문제에서 살펴봤듯 음운 변동들 간의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유기음화입니다. 따라서 '끓고'처럼 'ㄹ'이 음절 종성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ㅎ'과 'ㄱ'이 만나 유기음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자료]에 보면 구개음화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자칫하면 구개음화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틀린 해석이죠. 왜냐하면 구개음화는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나기 때문에 애초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환경과 완전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선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① '훤이[훤치]'는 'ㅌ'이 연음된 후 'ㅣ'와 만나 구개음화가 나타났을 뿐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①번이었습니다.
- ② '훤어[훤터]'는 'ㅌ'이 연음될 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 ③ '엷는[언는]'은 'ㄴ'이 음절 종성에 놓여 'ㅈ'이 탈락되는 자음군 단순화를 겪었네요. 앞 페이지에서 다른 내용을 토대로 분석

하면 'ㅈ'이 'ㄷ'으로 교체된 후에 탈락된 것이겠죠?

④ '끓고[끌코]'는 유기음화가 자음군 단순화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⑤ '끓는[끌른]'은 자음군 단순화로 'ㅎ'이 탈락된 후 순행 유기음화가 나타났습니다. 9p에서 다뤘던 겹받침에서의 순행 유기음화에 해당되는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표준 발음법] 제4장\_받침의 발음

○10항\_겹받침 'ㄱ', 'ㄷ', 'ㄹ', 'ㄴ', 'ㄷ',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비]으로 발음한다.

    넋[넋], 넋과[넋짜], 앓다[안따], 여덟[여덟], 널다[널따]  
    외곶[외곶], 훗다[할따], 값[갑], 없다[엷따]  
    다만, '밭-'은 자음 앞에서 [밭]으로 발음하고, '넋-'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넋]으로 발음한다.

    (1) 밭다[밭따], 밭소[밭쏘], 밭지[밭찌], 밭는[밭는→밭는]  
        밭게[밭께]밭고[밭꼬]

    (2) 넋-죽하다[넋쭈카다]넋-동글다[넋똥글다]

○11항\_겹받침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비]으로 발음한다.

    닭[닥], 흉과[흉짜], 맑다[막따], 늑지[늑찌]  
    삼[삼], 쫄다[쫄따], 읍고[읍꼬], 읍다[읍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말게[말께], 물고[물꼬], 얹거나[알거나]

⇒ 저는 겹받침의 발음을 '닭을 삼을 때 시를 읍는다'로 외웠습니다! 'ㄹ', 'ㅁ', 'ㅂ'의 경우는 앞에 오는 자음이 탈락하고 이 외의 겹받침은 모두 뒤에 오는 자음이 탈락한다고 암기하면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각각 예외가 한 가지씩 있다고만 추가해 주면 됩니다. 'ㄹ', 'ㅁ', 'ㅂ'은 'ㄱ' 앞에서 반대로 뒤에 오는 'ㄱ'이 탈락합니다. 그리고 이 외의 겹받침 중 '밭-'은 반대로 뒤에 오는 자음이 아니라 앞에 오는 자음이 탈락하죠. 이렇게 기억해 두고 몇번 문제를 풀다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것입니다!



(15)

고2 - 2020년 11월 13번  
정수 - p.35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과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음운의 변동에는 인접한 두 음운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음운의 영향을 받아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때 바뀌게 되는 음운을 'A', 바뀌어 나타난 음운을 'B', 영향을 준 음운을 'C'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식	설명
㉠	A → B/_C	A가 C의 영향을 받아 C 앞에서 B로 바뀌는 경우
㉡	A → B/C_	A가 C의 영향을 받아 C 뒤에서 B로 바뀌는 경우

- |   |     |     |
|---|-----|-----|
|   | ㉠   | ㉡   |
| ① | 겹눈  | 맨입  |
| ② | 실내  | 국물  |
| ③ | 작년  | 칼날  |
| ④ | 백마  | 잡히다 |
| ⑤ | 끓이다 | 물놀이 |

(16)

고2 - 2014년 3월 11번  
정수 - p.35

<보기>를 참고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화 현상은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의 성질을 닮아 가는 현상이다. 동화에는 'ㄴ, ㄹ'의 앞에서 'ㄱ, ㄷ, ㅂ'이 'ㅇ, ㄴ, ㄹ'으로 변하는 비음화, 'ㄹ'의 앞뒤에서 'ㄴ'이 'ㄹ'로 변하는 유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났을 때 'ㄷ, ㅌ'이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있다.

- ① '밤물'은 [밤물]로 발음해야 한다.
- ② '밭이'는 [바치]로 발음해야 한다.
- ③ '난리'는 [난니]로 발음해야 한다.
- ④ '땀밭이'는 [땀바지]로 발음해야 한다.
- ⑤ '먹는다'는 [멍는다]로 발음해야 한다.

(17)

고3 - 2015년 6월 11번  
정수 - p.35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것이 동화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 듣+고 → [듣꼬]	㉡ 놓+고 → [노코]
㉢ 훑+네 → [훑레]	㉣ 뿔+느라 → [뿔느라]
㉤ 넓+더라 → [널떠라]	

학생: \_\_\_\_\_ [가]

- ①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ㄱ'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ㄱ'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②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ㅎ'이 'ㄱ'의 영향을 받아 'ㅎ'과 거센소리라는 점이 같은 'ㅋ'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③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ㄴ'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ㄷ'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④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ㅂ'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과 콧소리라는 점이 같은 'ㄹ'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⑤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ㅂ'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동일한 소리인 'ㄷ'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동화 현상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속성을 닮아가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다뤘던 비음화나 유음화가 대표적인 동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화 현상에서는 동화를 일으키는 동화주, 동화주를 닮아가는 피동화주 등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음운 변동에 대입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궁민]'은 동화주가 비음인 'ㅁ'이고 피동화주는 'ㄱ'입니다.

이외에도 교재에서 다뤘던 동화의 세 가지 하위 구분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15) 문제 해설 - 정답: 3번**

이 문제는 동화 현상을 다룬 간단한 문제이지만, 도식이 함께 나온 경우라 실어봤습니다. 여기 쓰인 도식은 실제 동화 현상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처음보게 되면 빠르게 이해가 안갈 수 있으니 이번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의 도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 기호 앞부분과 뒷부분을 따로따로 보시면 됩니다. 'A→B'라는 말은 'A'라는 음운이 'B'라는 음운으로 교체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 뒤에는 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이 나오죠. 'C'는 'A'에게 영향을 주는 동화주가 됩니다. 'C'앞에 밀줄이 오는 '\_C'는 피동화주 'A'가 'C' 앞에 올 때 'B'로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화의 유형으로 보면 역행 동화죠. 반면 'C\_'는 동화주가 피동화주 앞에 오는 것으로 순행 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행 동화, ㉡이 순행 동화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선지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 ① '겹눈[검눈]'은 'ㅂ'이 'ㄴ'앞에서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역행 동화(비음화)입니다.  
'맨입[맨닙]'은 동화 현상이 아닌 'ㄴ' 첨가입니다.
- ② '실내[실래]'는 'ㄴ'이 'ㄹ' 뒤에서 같은 유음으로 바뀌는 순행 동화(유음화)입니다.  
'국물[궁물]'은 'ㄱ'이 'ㄹ'앞에서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역행 동화(비음화)입니다.
- ③ '작년[장년]'도 'ㄱ'이 'ㄴ'앞에서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역행 동화(비음화)입니다.  
'칼날[칼랄]'은 'ㄴ'이 'ㄹ' 뒤에서 같은 유음으로 바뀌는 순행 동화(유음화)입니다.
- ④ '백마[뱅마]'는 'ㄱ'이 'ㄹ'앞에서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역행 동화(비음화)입니다.  
'잡히다[자피다]'는 동화 현상이 아닌 유기음화입니다.
- ⑤ '끓이다[끄리다]'는 동화 현상이 아닌 'ㅎ' 탈락입니다.  
'물놀이[물로리]'는 'ㄴ'이 'ㄹ' 뒤에서 같은 유음으로 바뀌는 순행 동화(유음화)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입니다.

**(16) 문제 해설 - 정답: 3번**

이 문제는 구개음화도 동화 현상에 포함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실어봤습니다. 구개음화는 피동화주인 'ㄷ, ㅌ'이 동화주 'ㅣ, ㅈ'에 의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도식으로 나타내자면 'ㄷ, ㅌ→ㅈ, ㅊ/\_ㅣ (또는 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역행 동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구개음화가 동화 현상이 되려면 동

화주인 'ㅣ, ㅈ'와 'ㅈ, ㅊ'이 닮은 구적이 있어야겠지요? 둘이 자음과 모음이라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분명 닮은 구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나는 위치가 입천장 쪽이라는 것입니다. 'ㅣ'모음은 고모음이고, 반모음 'ㅈ' 또한 'ㅣ' 모음을 닮은 고모음에 속합니다. 그리고 'ㅈ, ㅊ'은 애초에 이들을 부르는 말자체가 셴입천장소리죠. 따라서 구개음화는 동화 현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정답은 ③번입니다. 보통 문제에서 발음값이 주어지면 대부분 올바른 발음값을 주는데, 이번 문제는 특이하게 틀린 발음값이 주어졌네요!

**(15) 문제 해설 - 정답: 4번**

이 문제에서는 동화 현상을 조금 더 세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화가 나타날 때 단순히 어떤 음운으로 교체되었다라는 것뿐 아니라 조음 위치가 바뀌었는지, 조음 방법이 바뀌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음에서 나타나는 동화 현상을 보면 비음화나 유음화는 조음 위치가 바뀌는 동화 현상입니다. 조음 위치가 변하는 동화 현상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조음 위치 동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음 위치 동화는 문제에서 잘 다루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 ㉠ ~ ㉣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은 된소리되기입니다.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 면에서 닮아간 것이 없기에 동화 현상이 아닙니다.
- ㉡은 유기음화입니다. 마찬가지로 동화 현상이 아닙니다.
- ㉢은 'ㄴ'이 'ㄹ'에 영향을 받아 조음 방법이 바뀌어서 같은 'ㄹ'이 되었습니다. 동화 현상은 맞지만 'ㅌ'의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 ㉣은 'ㅂ'이 'ㄴ'에 영향을 받아 조음 방법이 같은 비음으로 바뀌어서 'ㄹ'이 되었습니다. ④번이 정답입니다.
- ㉤은 'ㄷ'이 'ㅂ'에 의해 된소리되기 일어나 '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앞서 보았듯 된소리되기는 동화 현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틀린 선지입니다. 참고로 '넙더라'는 '넙더라 → 넙떠라 → [넹떠라]로 발음의 도출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의 9p에서 확인을 한 내용이지요? 이 내용은 앞으로도 문제를 풀면서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것입니다!



(18)

고2 - 2022년 3월 13번  
정수 - p.50, 54

<보기>의 ㉠,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ㅎ’은 다양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ㅎ’의 음운 변동에는 ‘ㅎ’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ㅎ’이 다른 음운과 합쳐져 새로운 음운이 되는 축약, ‘ㅎ’이 없어져 발음되지 않는 탈락이 있다. 가령 ‘농친[논친]’은 ‘ㅎ’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교체의 예에 해당한다.

‘ㅎ’의 음운 변동			
유형	교체	축약	탈락
예	농친[논친]	㉠	㉡

- |           |        |
|-----------|--------|
| ㉠         | ㉡      |
| ① 좋고[조:코] | 달아[다아] |
| ② 좋고[조:코] | 쌍네[짚네] |
| ③ 넣는[넌:는] | 달아[다아] |
| ④ 넣는[넌:는] | 쌍네[짚네] |
| ⑤ 좁힌[조핀]  | 달지[달치] |

(19)

고3 - 2014년 3월 11번  
정수 - p.50

<보기>의 음운 현상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보기>

‘ㅎ’이 끝소리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면 ‘ㅎ’이 탈락한다. ‘낳으세요’를 [나으세요]로 발음하거나 ‘쌍이다’를 [싸이다]로 발음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 ① ‘하얏다’를 [하야타]라고 발음한다.
- ② ‘좁히다’를 [조피다]라고 발음한다.
- ③ ‘놓는다’를 [논는다]라고 발음한다.
- ④ ‘그렇죠’를 [그러쵸]라고 발음한다.
- ⑤ ‘좋아요’를 [조아요]라고 발음한다.

(20)

고3 - 2022년 7월 37번  
정수 - p.50, 51, 52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활동>

[자료]의 단어들은 음운 변동 중 탈락이 일어난 예이다. 단 어들을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 ㉡, ㉢에 들어갈 단어를 다르게 짚지은 것은?

[자료]  
 ㉠ 뜨 + 어서 → 떠서[떠서]      ㉡ 둥글 + ㄴ → 둥근[둥근]  
 ㉢ 좋 + 아 → 좋아[조:아]

[분류 과정]

```

    자료 → { 자음이 탈락하였나요? }
    |
    | 아니요 → ㉠
    |
    | 예 → {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나요? }
    |
    | 아니요 → ㉡
    |
    | 예 → ㉢
    
```

- |     |     |     |
|-----|-----|-----|
| ㉠   | ㉡   | ㉢   |
| ① a | ① c | ① b |
| ② a | ② b | ② c |
| ③ c | ③ a | ③ b |
| ④ c | ④ b | ④ a |
| ⑤ b | ⑤ a | ⑤ c |

(21)

고3 - 2020년 3월 11번  
정수 - p.54

<보기>의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학습 내용 :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음운 변동은 한 단어를 단독으로 발음하는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낮’과 ‘한때’를 각각 단독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낮[남]’은 교체가 일어나고 ‘한때[한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낮’과 ‘한때’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 ‘낮 한때[나 단때]’로 발음된다.

○ 학습 과제 : 아래의 ㄱ과 ㄴ에서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찾고, 그 유형의 적절한 예를 제시하시오.

ㄱ. 잘 입다[잘립따]  
 ㄴ. 값 매기다[감매기다]

- | 공통적인 음운 변동의 유형 | 예           |
|----------------|-------------|
| ① 교체           | 책 넣는다[챙넌는다] |
| ② 교체           | 좋은 약[조:은약]  |
| ③ 교체           | 잘한 일[잘한닐]   |
| ④ 첨가           | 슬픈 얘기[슬픈내기] |
| ⑤ 첨가           | 먼 옛날[먼:넌날]  |

**(18) 문제 해설 - 정답: 1번**

이 문제는 'ㅎ'의 다양한 음운 변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ㅎ'은 우리말의 음운 중 가장 다양한 변동을 겪는 음운인데요, 음절 종성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ㄷ'으로 교체되거나, 'ㄱ, ㄷ, ㅂ, ㅈ'와 결합하여 'ㅋ, ㅌ, ㅍ, ㅊ'로 축약되거나, 형식 형태소 앞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선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고'는 유기음화(축약)가 나타납니다.

'넣는'은 '넣는→넌는(음·끝)→넌는(비음화)'으로 발음값이 도출됩니다. 두 음운 변동 모두 교체에 해당합니다.

'달아'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ㅎ'이 탈락합니다.

'쌍네'는 '넣는'과 동일하게 발음값이 도출되니 교체입니다.

'달지'는 '종고', '좁힌'처럼 유기음화(축약)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

**(19) 문제 해설 - 정답: 5번**

이 문제는 'ㅎ' 탈락을 단독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교재에서 다뤘듯이 'ㅎ' 탈락은 자음군 단순화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죠. '않는'과 같은 자음군 단순화로 'ㅎ'이 탈락하는 경우는 'ㅎ'이 음절의 종성이 놓입니다. 반면에 'ㅎ' 탈락은 뒤에 형식 형태소가 와야하죠.

①, ②, ④는 유기음화(축약), ③은 위 문제의 '넣는'과 동일하게 발음값이 도출되는 교체, ⑤가 'ㅎ' 탈락입니다. '-야요'라는 어미 앞에서 'ㅎ'이 탈락됩니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 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ㄷ, ㅌ)'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놓고[노코], 앉던[안턴], 달지[달치]

[붙임1] 받침 'ㄱ(ㄱ), ㄷ, ㅂ(ㅃ), ㅈ(ㅉ)'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ㅊ, ㅊ]으로 발음한다.

떡하다[머키다], 망형[마형], 넓하다[넙피다], 꽃하다[꼬치다]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ㅌ, ㅈ, ㅊ, ㅊ'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옷 한 벌[오탄벌], 낫 한때[나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2. 'ㅎ(ㄷ, ㅌ)' 뒤에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ㅌ'을 [ㅊ]으로 발음한다.

달소[다쑤], 말소[만쑤], 실소[실쑤]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놓는[논는], 쌍네[쌍네]

[붙임] 'ㄷ, ㅌ'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안는[안는], 똥네[똥네→똥레]

4. 'ㅎ(ㄷ,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낯은[나은], 쌍이다[쌍이다], 달아[다라]

⇒ 1의 [붙임1, 2]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붙임1]은 한 단어의 내부입니다. 접사가 붙어 새로운 단어가 파생된 경우도 '망형'과 같은 한 단어로 취급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ㅎ'이 앞의 소리와 바로 축약이 됩니다. 반면 [붙임2]는 한 단어가 아니라 단어의 경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난 후에 축약이 됩니다. '낫 한때'는 '낫 한때→낫한때→[나탄때]'가 됩니다. [나탄때]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달 한 마리'도 [달칸마리]가 아니라 '달 한 마리→달한마리→[다칸마리]'가 됩니다.

⇒ 2의 경우에는 [표준 발음법]에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다소 중등 교육 내용과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 여기서는 신지 않았습니!

**(20) 문제 해설 - 정답: 1번**

이 문제는 'ㅎ' 탈락뿐 아니라 다른 탈락들도 함께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탈락에는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ㄴ' 탈락과 같은 자음이 탈락되는 것과 'ㄴ' 탈락, 'ㄴ/ㄷ' 뒤 동일 모음 탈락과 같은 모음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재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떠서'는 어간의 'ㄴ'이 탈락하는 'ㄴ'탈락입니다. 이렇게 'ㄴ'이 탈락하는 이유는 모음 중에서 가장 약한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둥근'은 용언 어간의 'ㄴ'이 'ㄴ' 앞에서 탈락하는 'ㄴ' 탈락입니다. 이는 조음 위치가 비슷한 자음끼리 충돌하여 탈락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좋아'는 앞에서도 살핀 'ㅎ' 탈락이네요.

정답은 ①번입니다.

**(21) 문제 해설 - 정답: 1번**

이 문제는 두 단어 사이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살핀 [표준 발음법]에서 '낫 한때[나탄때]'에 대해 단어의 경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과 이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급 과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ㄱ. 잘 입다: 잘입다('ㄴ'첨가-첨가)→잘립다(유음화-교체)→잘립따(된소리되기-교체)

ㄴ. 값 매기다: 값매기다(자·단-탈락) → 감매기다(비음화-교체) ((\* '잘 입다'에서 '잘-입' 경계에서는 첨가와 교체가, '입-다' 경계에서도 교체가 나타납니다. 다른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굳이 순서를 따질 수 없으니 그냥 편의상 앞쪽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부터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공동적인 음운 변동의 유형은 교체가 되겠네요. 선지에 있는 예를 볼까요? 참고로 단어 경계에 있는 음운 변동이 포인트이니 그 외의 음운 변동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연습도 할 겸 다른 음운 변동도 함께 적어 보겠습니다!

-책 넣는다: 책넣는다(비음화-교체)→책넌는다(음·끝)→책닌는다(비음화-교체)

-좋은 약: 조은약('ㅎ'탈락-탈락)→조은낙('ㄴ'첨가-첨가)

-잘한 일: 잘한닐('ㄴ'첨가-첨가)

-슬픈 얘기: 슬픈내기('ㄴ'첨가-첨가)

-먼 옛날: 먼넛날('ㄴ'첨가-첨가)→먼넛날(음·끝)→먼넛날(비음화-교체)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었습니다.



(22)

고2 - 2014년 11월 11번  
정수 - p.54

<보기>의 ㉠과 같은 음운 현상이 나타난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음운 변동은 단어에 따라 한 번만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 단어 안에서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교체 후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 ㉠ 교체 후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 탈락 후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 첨가 후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① 꽃다발: [꼐다발] → [꼐따발]
- ② 뉘두리: [넉두리] → [넉투리]
- ③ 뜻하다: [뜰하다] → [뜨타다]
- ④ 부역문: [부역문] → [부영문]
- ⑤ 색연필: [색년필] → [생년필]

(23)

고3 - 2013년 4월 12번  
정수 - p.57, 58

다음은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자음 동화  
자음 동화에는 자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있다. '국물[궁물]'은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사례이며, '날리[날리]'는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사례이다.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첨가'란 원래는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맨입으로는 알려 줄 수 없다.'에서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첫 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이지요.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ㄹ'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됩니다. 이때에는 '뒷문[뉘문]'의 경우처럼 앞말에 사이시옷('ㅅ')을 넣어서 이를 표시해 준답니다.

<보기>

ㄱ. 그는 날렵한 ㉠ 코날[곤날]이 매우 인상적이다.  
ㄴ. 나는 아끼던 ㉡ 색연필[생년필]을 잃어버려 속이 상했다.  
ㄷ. 그 사람은 회사의 ㉢ 막일[망닐]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ㄹ. 아이가 아직 알약을 먹지 못해서 ㉣ 물약[물략]을 지어갔다.  
ㅁ. 그녀는 ㉤ 잇몸[인똘]이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 ① ㉠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되는 합성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② ㉡에서 'ㄴ'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이군.
- ③ ㉢은 'ㄴ' 소리가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④ ㉣은 'ㄴ' 소리가 첨가되어 '[물략]'으로 바뀐 후,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⑤ ㉤은 사이시옷을 넣어서 'ㄴ' 소리가 첨가됨을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24)

고1 - 2016년 11월 11번  
정수 - p.57

다음 표준 발음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학 생: 선생님, 저번 시간에 ㉠ 흡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셨으니까 '막일'은 [마길]로 발음해야 하나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막일'은 [망닐]로 발음해야 해요.  
학 생: 그러면 '막일'에서 '일'이 [닐]로 발음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막'은 왜 [망]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것은 ㉢ 받침소리 [ㄱ, ㄷ, ㅂ]은 [ㄴ, ㄹ] 소리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닐]이 아니라 [망닐]로 발음해야 됩니다.  
학 생: 아,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제가 더 알아둬야 할 것이 있나요?  
선생님: ㉣ [ㄴ] 소리가 첨가된 후, 이 [ㄴ] 소리가 받침소리 [ㄹ] 뒤에서 [ㄹ]로 발음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물약'을 [물략]으로 발음하는 것이 이에 해당해요.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눈 + 요기	㉠	[눈노기]
②	내복 + 약	㉡, ㉢	[내:봉략]
③	색 + 연필	㉡, ㉢	[색년필]
④	들 + 일	㉡, ㉣	[들:닐]
⑤	칼 + 날	㉡, ㉣	[칼랄]

(25)

고2 - 2023년 6월 13번  
정수 - p.54

<보기>는 음운 변동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있습니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 음운 개수가 변하기도 하는데요. 제시된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있는 대로 모두 찾고 음운 개수의 변화를 정리해 볼까요?

	단어	음운 변동 종류	음운 개수의 변화
①	국밥[국빱]	첨가	하나가 늘어남.
②	똥[똥른]	교체, 탈락	하나가 줄어듦.
③	막내[망내]	교체, 축약	하나가 줄어듦.
④	물약[물략]	첨가	하나가 늘어남.
⑤	뽕[뽕핀]	축약	변화 없음.

**(22) 문제 해설 - 정답: 3번**

이 문제는 축약의 관점에서 가지고 온 문제인데, 사실 축약 외에도 다른 여러 음운 변동이 포함된 문제입니다. 그럼 선지에서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를 찾아 보겠습니다.

- ① 꼴다발: 꼴다발(음·끝-교체)→꼴따발(된소리되기-교체)
- ② 닛두리: 닛두리(자·단-탈락)→닛두리(된소리되기-교체)
- ③ 뜻하다: 뜻하다(음·끝-교체)→뜨타다(유기음화-축약)
- ④ 부역문: 부역문(음·끝-교체)→부영문(비음화-교체)
- ⑤ 색연필: 색년필('ㄴ'첨가-첨가)→생년필(비음화-교체)

정답은 ③번이네요.

**(25) 문제 해설 - 정답: 2번**

이 문제는 비음화, 유음화, 'ㄴ'첨가, 그리고 사잇소리 현상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비음화와 유음화는 많이 다뤘으니 'ㄴ' 첨가와 사잇소리만 보겠습니다.

교재에서도 다뤘지만 'ㄴ' 첨가와 사잇소리 현상은 비슷한 점이 있어 이를 함께 묶기도 합니다. 사잇소리 현상도 문제에서 다뤘듯이 'ㄴ'이 소리가 덧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ㄴ' 첨가가 사잇소리 현상에 포함되냐 아니냐 하는 문법적 견해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ㄴ' 첨가는 합성어뿐 아니라 파생어,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 ㅈ'일 때 'ㄴ'이 첨가되죠. 반면 사이시옷 현상은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쉽게 3가지로 구분지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 1.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ex) 초+불, 산+길
- 2. 뒷말 'ㄴ, ㄹ' 앞에서 'ㄴ'이 덧나는 경우 ex) 코 + 날
- 3. 뒷말 'ㅣ, ㅈ' 앞에서 'ㄴㄴ'이 덧나는 경우 ex) 나무+잎

이 중에서 문제에서는 2번만 다룬 것이죠. 사잇소리 현상의 2번과 'ㄴ' 첨가가 다른 점은 'ㄴ' 첨가에서 'ㄴ'은 뒷말의 초성에 첨가가 되지만 사잇소리 현상에서는 앞말 종성에 첨가됩니다. 그리고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면 사이시옷(ㅅ)을 표기에 적습니다.

그럼 <보기>의 밑줄 친 단어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룻날'은 '코+날'에서 'ㄴ'이 앞말 종성에 첨가가 되니 사잇소리 현상입니다.

'색연필'은 자음 뒤의 'ㄱ'앞에서 'ㄴ'이 뒷말 초성에 첨가가 되니 'ㄴ' 첨가입니다. 그리고 첨가된 'ㄴ'에 의해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막일'도 자음 뒤의 'ㅣ' 앞에서 'ㄴ'이 뒷말 초성에 첨가가 되니 'ㄴ' 첨가입니다. 그리고 첨가된 'ㄴ'에 의해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물약'도 자음 뒤의 'ㅈ' 앞에서 'ㄴ'이 뒷말 초성에 첨가가 되니 'ㄴ' 첨가입니다. 그리고 첨가된 'ㄴ' 앞의 'ㄹ'에 의해 유음화가 됩니다.

'잇몸'은 '이+몸'에서 'ㄴ'이 앞말 종성에 첨가가 되니 사잇소리 현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입니다.

사이시옷은 최근(2025년) 폐지를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문제에서 만나기는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사용이 혼란스럽다는 것인데 이를 문제로 다루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24) 문제 해설 - 정답: 2번**

이 문제는 'ㄴ' 첨가에 대해 연습하기 위해 실은 문제입니다. 다른 음운 변동도 나오니 함께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에서 말하는 내용과 아래 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교차로 점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에 있는 단어들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 ① 눈요기: 눈노기('ㄴ'첨가-첨가)
  - ② 내복약: 내복낙('ㄴ'첨가-첨가)→내봉낙(비음화-교체)
  - ③ 색연필: 색년필('ㄴ'첨가-첨가)→생년필(비음화-교체)
  - ④ 들일: 들닐('ㄴ'첨가-첨가)→들릴(유음화-교체)
  - ⑤ 칼날: 칼랄(유음화-교체)
- ②번이 정답입니다.

**(25) 문제 해설 - 정답: 2번**

이 문제는 음운 변동의 유형뿐 아니라 음운 개수의 변화까지 살펴 봐야 하네요. 선지를 보겠습니다.

- ① 국밥: 국뺨(된소리되기-교체)
  - ② 똥: 똥(자·단-탈락, -1)→똥른(유음화-교체)
  - ③ 막내: 망내(비음화-교체)
  - ④ 물약: 물낙('ㄴ'첨가-첨가, +1)→물락(유음화-교체)
  - ⑤ 발핀: 발핀(유기음화-축약, -1)
- 정답은 ②번입니다.



(26)

교2 - 2013년 6월 11번  
정수 - p.32, 34, 37, 50, 54, 57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교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며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 '첨가'는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것이고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것을 가리킨다.

- ① 한여름[한너름]      ② 막히면[마키면]
- ③ 물난리[물랄리]      ④ 벗나무[번나무]
- ⑤ 넣어서[너어서]

(27)

교1 - 2020년 3월 11번  
정수 - p.34, 57

<보기>의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생님 :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음운의 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죠? 오늘은 좌표를 이용해서 이를 쉽게 확인해 볼게요.

이 좌표 평면에서 0인 별표(★)를 기준으로, 음운의 수가 늘어나는 '첨가'는 늘어난 음운 수만큼 위쪽으로, 음운의 수가 줄어드는 '탈락'과 '축약'은 줄어든 음운 수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음운의 수가 변하지 않는 '교체'는 교체 횟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굳히다'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거티다]가 된 후 구개음화에 의해 [거치다]가 되므로, 축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음운의 수가 한 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색연필'의 음운 변동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학생 : 제 생각에는 '색연필'이 [색년필 → 색년필]로 바뀌므로, ( ㉠ )이/가 한 번씩 일어나 ( ㉡ )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음운의 수가 한 개 늘어납니다.

- ① 첨가와 교체      ㉠
- ② 첨가와 교체      ㉡
- ③ 첨가와 탈락      ㉢
- ④ 탈락과 교체      ㉣
- ⑤ 탈락과 교체      ㉤

(28)

교1 - 2023년 9월 13번  
정수 - p.38, 39, 54, 57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 음운의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축약, 원래 있던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운의 변동은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음운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음운의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음운의 변동을 탐구해 봅시다.

국밥[국뽕], 굳히다[구치다], 급행열차[그뽕널차]

위 자료를 '국밥', 그리고 '굳히다, 급행열차'로 나누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학 생 : ( ㉠ )를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 맞습니다. 그럼, '굳히다'와 '급행열차'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 생 : ( ㉡ )입니다.

선생님 : 네, 맞습니다.

- ㉠      ㉡
- ① 음운의 변동이 두 가지 이상 일어났는지      축약
- ② 음운의 변동이 두 가지 이상 일어났는지      교체
- ③ 음운의 변동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었는지      탈락
- ④ 음운의 변동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었는지      교체
- ⑤ 음운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지      축약

(29)

교2 - 2019년 6월 13번  
정수 - p.32, 34, 37, 38, 46, 50, 57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 밑줄 친 부분에서 ㉠ 교체, ㉡ 탈락, ㉢ 첨가, ㉣ 축약을 찾아 음운의 변동 양상을 설명해 볼까요?

나는 어제 사 온 책을 읽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 목차만 훑고서 사온 책은 기대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장시간 책을 봐서인지 머리가 아팠다. 그러나 예삿일로 생각해 어머니께서 챙겨 주신 알약을 먹지 않고 있다가 결국 몸살을 앓았다.

- ① '읽느라[잉느라]'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② '훑고서[훑꼬서]'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③ '예삿일[예산닐]'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④ '알약을[알라글]'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⑤ '앓았다[아랄따]'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30)

교3 - 2013년 9월 11번  
정수 - p.32, 38, 46, 54, 57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 지는 ㉣ 축약이 그것이다.

- ① '가랑잎[가랑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값지다[갑찌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열차[그뽕널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서른여덟[서른녀덜]'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이번 페이지에서 다른 문제는 음운 변동을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라는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이전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긴했지만 이번 5문제를 풀면서 더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보자구요!

**(26) 문제 해설 - 정답: 1번**

이 문제에서는 첨가만 다루고 있습니다.

- ① 한여름: 한녀름('ㄴ'첨가-첨가)
  - ② 막히면: 막키면(유기음화-축약)
  - ③ 물난리: 물란리(순행 유음화-교체)→물랄리(역행 유음화-교체)
  - ④ 벚나무: 변나무(음·끝-교체)→변나무(비음화-교체)
  - ⑤ 넣어서: 너어서('ㅎ'탈락-탈락)
- 정답은 ①번입니다.

간혹 '물난리'의 경우 17p의 '잘 입다'처럼 서로 다른 경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순서를 따질 필요가 없어 앞쪽 경계의 음운 변동부터 적었습니다.

순서를 따지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만 따집니다.

1. 특정 음운의 연쇄에서 여러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 때
  2. 1의 경우일 때 음운 변동들 간의 순서에 따라 발음값이 달라질 때
- 1과 2를 모두 충족한 경우만 순서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외의 경우에는 굳이 순서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7) 문제 해설 - 정답: 2번**

이 문제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다루면서도 문제의 유형이 특이해서 실어봤습니다.

<보기>에 나온 것처럼 음운의 개수 측면에서 보면 교체는 변함이 없고, 탈락과 축약은 개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그리고 첨가는 말 그대로 하나가 늘어나죠. 축약이 개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a+b→c'처럼 2개가 1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색연필'은 '색녀필('ㄴ'첨가-첨가)→생연필(비음화-교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입니다.

**(28) 문제 해설 - 정답: 1번**

선생님의 말을 보면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럼 제시된 단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국밥: 국뺨(된소리되기-교체)
- 굳히다: 구티다(유기음화-축약)→구치다(구개음화-교체)
- 급행열차: 그팽열차(유기음화-축약)→그팽널차('ㄴ'첨가-첨가)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음운 변동이 두 가지 이상 일어났는지입니다. 음운 개수의 경우 '국밥'은 변동이 없지만 '굳히다'는 축약이 한 번 일어나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급행열차'도 축약이 일어나지만 첨가도 일어나기 때문에 개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표기 반영 여부는 셋 다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

**(29) 문제 해설 - 정답: 1번**

이번 문제는 <보기>의 단어들만 분석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 임느라: 익느라(자·단-탈락)→잉느라(비음화-교체)
- 훤고서: 훌고서(음·끝-교체)→훌고서(된소리되기-교체)→훌꼬서(자·단-탈락)
- 예삿일: 예삿닐('ㄴ'첨가-첨가)→예삼닐(음·끝-교체)→예산닐(비음화-교체)
- 알약: 알낙('ㄴ'첨가-첨가)→알락(유음화-교체)
- 않았다: 아랐다('ㅎ'탈락-탈락)→아라다(음·끝-교체)→아랄따(된소리되기-교체)

정답은 ①번이었네요. '훤고서'는 앞에서도 다뤘었죠?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면 올바른 발음값이 도출될 수 없으니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30) 문제 해설 - 정답: 4번**

이 문제도 선지의 단어들만 분석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 가랑잎: 가랑닐('ㄴ'첨가-첨가)→가랑닙(음·끝-교체)
  - 값지다: 갑지다(음·끝-교체)→갑찌다(된소리되기-교체)→갑찌다(자·단-탈락)
  - 술하다: 순하다(음·끝-교체)→수타다(유기음화-축약)
  - 급행열차: 그팽열차(유기음화-축약)→그팽널차('ㄴ'첨가-첨가)
  - 서른여덟: 서른녀덟('ㄴ'첨가-첨가)→서른녀덜(자·단-탈락)
- 정답은 ④번입니다.



**찬슬쌤의 추가 설명** - 발음 도출 과정이 헷갈릴 때

(30)문제의 ebs해설을 보면 아래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값지다: 갑지다(자·단-탈락)→갑찌다(된소리되기-교체)

11p에서 살펴봤듯이 음운 변동의 순서는 정해져 있고 이것이 동일한 환경에서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값지다'는 '갑지다→갑찌다→갑찌다'로 설명하는 것이 더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값지다'의 경우는 'ㅅ'이 먼저 탈락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올바른 발음값이 도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해설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훤다'와 같이 순서가 중요한 경우에도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직 음운 변동의 순서에 대해 공통된 합의를 얻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예로 '값만'은 엄밀히 분석하면 '값만→갑드만→갑드만→갑드만'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냥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도 올바른 발음값을 도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값는→안는→안는'도 비슷한 예입니다.

이런 식의 음운 변동들 간의 순서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값다, 훤다, 넓다'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들은 위의 '값지다, 값만, 값는'과 달리 자음군 단순화의 순서가 올바른 발음값의 도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들의 경우에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나면 간혹, "값지다"는 해설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엄밀히 따지면 ~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입니다. ㅎㅎ 물론 질문하는 것은 좋은 공부 태도이지만 아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값지다'류의 자음군 단순화의 순서가 상관없는 단어는 출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어지는 문제들에서도 자음군 단순화의 순서가 상관없는 경우라면 설명의 간결성을 위해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난다고 적겠습니다. 그러니 원칙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아~ 나는 이거 알고 있어~어떤 원리인지도 알고 있지~"하면서 넘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제가 말한 이러한 변동 순서도 결국은 한 문법 학자의 이론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음운 변동의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실어봤습니다. 교재에서도 설명했던 음운 변동들 간의 순서를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이를 고려하여 문제를 풀어봅시다!

**(31) 문제 해설 - 정답: 1번**

<보기>의 '음절 종성에서는 자음을 두 개 발음할 수 없다'는 말은 음절 구조 제약을 말합니다. (05)문제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음운 변동의 구체적인 양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음운론적 제약과 같이 그 음운 변동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도 문제화되어 나올 수 있으니 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선지에 나온 단어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 ① 값만: 갑만(자·단)→감만(비음화)  
    흙과: 흑과(자·단)→흑파(된소리되기)
- ② 잃는: 일는(자·단)→일른(유음화)  
    웁고: 읍고(자·단)→읍꼬(된소리되기)
- ③ 덮지: 덮지(음·끝)→덮찌(된소리되기)  
    밭혀: 발켜(유기음화)
- ④ 밟는: 밥는(자·단)→밤는(비음화)  
    닭다: 닥다(음·끝)→닥따(된소리되기)
- ⑤ 짚어: 절머  
    짚지: 짚찌(된소리되기)→짚찌(자·단)

정답은 ①번입니다.

참고로 '값만', '잃는', '웁고'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음군 단순화의 순서가 상관이 없어서 먼저 일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짚지'의 경우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면 '잘지'가 되는데 'ㄹ' 뒤에서는 된소리가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발음값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된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난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설을 보면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 문제 해설 - 정답: 3번**

이 문제는 그동안 계속 나왔던 음운 변동들 간의 순서를 시험에서 제대로 다룬 문제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월 모의고사를 주관하는 곳이 평가원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라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시험에 나왔으니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진이 정말 작정을 했다고 느낀 것이, 단순히 변동 순서를 가볍게 건드린 것이 아니라 [자료]와 [탐구 과정]을 통해 귀납적으로 그 결과를 도출하는 식으로 하여 기존의 해설에서 잘못된 설명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느낌도 든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문제를 착실히 풀어 왔다면 문제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제가 말했던 것이라는 것을 눈치 채셨을 것입니다. 가설1은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며 'ㄹ'만 남았을 때 뒤에 오는 음운이 된소리가 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는 'ㄹ'로 끝날 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설2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ㄷ'으

로 교체되고 그 'ㄷ'에 의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그 후에야 자음군 단순화로 'ㄷ'이 탈락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에는 'ㄷ'으로 교체된다는 것이 들어갑니다. 정답은 ③번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납적으로 음운 규칙들 간의 순서를 도출해 내는 과정도 그렇고 음운 변동을 직접적으로 주기보다 [자료]에 풀어서 설명한 점도 문제를 풀 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음운 변동들 간의 순서에 대해 헛갈릴 일은 없겠죠? ㅎㅎ

그나저나 이렇게 문제에서 다뤘음에도 바로 일 년 후에 나온 (31)문제의 해설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의 의미하네요.

**(33) 문제 해설 - 정답: 3번**

이 문제는 '불여우'의 발음 도출 과정만 분석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불여우: 불녀우('ㄴ'첨가-첨가)→불려우(유음화-교체)  
따라서 정답은 ③번입니다.

**(34) 문제 해설 - 정답: 4번**

이 문제도 주어진 단어들을 분석하면 되겠네요.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 날날이: 날나티(음·끝-교체)→난나티(비음화-교체)→난나치(구개음화-교체)
- ㉡ 녀두리: 녀두리(자·단-탈락)→녀뚜리(된소리되기-교체)
- ㉢ 입학식: 이팍식(유기음화-축약)→이팍씩(된소리되기-교체)
- ㉣ 첫여름: 첫녀름('ㄴ'첨가-첨가)→첼녀름(음·끝-교체)→첼녀름(비음화-교체)
- ㉠에서 'ㄷ'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를 거쳐 'ㄴ'이 되었고
- ㉡에서 'ㅅ'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를 거쳐 '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참고로 '녀뚜리'는 자음군 단순화의 순서가 상관이 없어서 먼저 일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35)

고3 - 2018년 6월 14번  
정수 - p.32, 34, 37, 38, 46, 54

<보기>의 ㉠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 탐구 과제  
겹받침을 가진 용언을 발음할 때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 나아 표준 발음에 맞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으로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을 설명해 보자.

○ 탐구 자료

	비표준 발음	표준 발음
㉠ 굵는	[글른]	[궁는]
㉡ 째네	[째네]	[짤레]
㉢ 끈기고	[끈기고]	[끈키고]
㉣ 똥지	[똥지]	[똥치]

○ 탐구 내용  
㉠의 비표준 발음과 ㉢의 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    ㉠    )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의 표준 발음과 ㉢의 비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    ㉡    )가 나타난다. ㉣과 ㉢의 표준 발음은 (    ㉢    )만 일어난 발음이다.

- |   | ㉠   | ㉡     | ㉢      |
|---|-----|-------|--------|
| ① | 유음화 | 비음화   | 거센소리되기 |
| ② | 유음화 | 비음화   | 된소리되기  |
| ③ | 비음화 | 유음화   | 거센소리되기 |
| ④ | 비음화 | 유음화   | 된소리되기  |
| ⑤ | 비음화 | 된소리되기 | 거센소리되기 |

(36)

고3 - 2020년 10월 13번  
정수 - p.32, 34, 36, 37, 39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이 변하기도 합니다. 다음 단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자음 체계를 참고하여 설명해 볼까요?

말이[마지], 꽃눈[꼴눈], 강릉[강능], 실내[실래], 앞날[암날]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과열음	ㅂ/ㅃ/ㅍ	ㄷ/ㄸ/ㅌ		ㄱ/ㄲ/ㅋ	
과찰음			ㅈ/ㅉ/ㅊ		
마찰음		ㅅ/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① '말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만 한 번 변합니다.
- ② '꽃눈'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만 두 번 변합니다.
- ③ '강릉'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방법만 한 번 변합니다.
- ④ '실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가 변한 후 조음 방법이 변합니다.
- ⑤ '앞날'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방법이 변한 후 조음 위치가 변합니다.

(37)

고3 - 2023년 6월 38번  
정수 - p.32, 38, 46

<보기>의 ㉠, ㉡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 지난 시간에 음운의 변동 가운데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자음군 단순화, ㉢ 된소리되기를 학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운 변동의 적용 유무를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그럼, 표준 발음을 고려해서 다음 단어들을 분류해 보죠.

분류 전	㉠	㉡	㉢	분류 후
넓디넓다, 높푸르다, 늦깎이, 닭갈비, 썩대밭, 앞장서다, 읊다, 있다, 짓밟다, 흙빛	○	○	○	㉠
	○	×	○	㉡
	○	×	×	
	×	○	○	

○ :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  
× :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짓밟다</li> <li>② 넓디넓다</li> <li>③ 읊다</li> <li>④ 흙빛</li> <li>⑤ 닭갈비</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늦깎이</li> <li>㉡ 있다</li> <li>㉢ 높푸르다</li> <li>㉣ 썩대밭</li> <li>㉤ 앞장서다</li> </ol> |
|--|--|

(38)

고3 - 2022학년도 예시문항 37번(2020년 배포)  
정수 - p.32, 34, 37, 46, 54, 57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수영 : 내일이 방송부 아나운서를 선발하는 날인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진수 : 너무 걱정 마. 내가 대본에다가 발음에 주의해야 할 단어들의 표준 발음을 표시해 봤어. 확인해 봐.

[방송 대본]  
어제는 책을 열심히 ㉠ 읽는[잉는] 친구에게 선물할 책을 사려고 ㉡ 서울역[서울력] 안에 있는 서점에 갔어요. ㉢ 복잡한[복짜판] 인파를 헤치고 서점 ㉣ 깊숙이[깁쑤기] 들어가서 친구에게 줄 시집을 드디어 찾아냈지요. 시집을 펼쳐 마음에 드는 시를 ㉤ 읊다가[읍따가] 약속 시간에 늦었지만 친구는 제 선물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수영 : 그런데 왜 이 발음이 표준 발음이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데……. 우리가 배운 음운 변동과 관련이 있는 거야?  
진수 : 맞아. 각 단어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을 모두 살펴보면,  
\_\_\_\_\_ [A] \_\_\_\_\_

수영 : 그렇구나. 고마워.

- ① ㉠에서는 탈락과 교체 한 번씩 일어나 [잉는]으로 발음돼.
- ② ㉡에서는 한 번의 첨가가 일어나 [서울력]으로 발음돼.
- ③ ㉢에서는 축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복짜판]으로 발음돼.
- ④ ㉣에서는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나 [깁쑤기]로 발음돼.
- ⑤ ㉤에서는 한 번의 탈락과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나 [읍따가]로 발음돼.



음운 파트의 마지막 문제들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잘 푸셨나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개론서로 돌아가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5) 문제 해설 - 정답: 1번**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은 표준 발음뿐 아니라 비표준 발음도 함께 실었다는 것입니다. 비표준 발음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음운 변동을 찾는 것은 색다른 연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의 단어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 ㉠ 표준- 굵는: 극는(자·단)→궁는(비음화)  
비표준-     글는(자·단)→글른(유음화)
  - ㉡ 표준- 째네: 째네(자·단)→째레(유음화)  
비표준-     째네(자·단)→째네(비음화)
  - ㉢ 표준- 끈기고: 끈기고(유기음화)  
비표준-     끈기고(자·단)
  - ㉣ 표준- 뿔지: 뿔지(유기음화)  
비표준-     뿔지(음·끝)→뿔ㄷ(된소리되기)→뿔찌(자·단)
- 비표준 발음의 경우 대부분이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이 있었네요. ㉠, ㉡처럼 겹받침을 잘못 탈락시키거나 ㉢처럼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일어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정답은 ①번입니다.

**(36) 문제 해설 - 정답: 3번**

이 문제는 음운 변동의 결과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는 문제였습니다. <보기>에서 주어진 단어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 말이: 마디(구개음화)
- 꽃눈: 꼰눈(음·끝)→꼰눈(비음화)
- 강릉: 강릉('ㄹ'의 비음화)
- 실내: 실래(유음화)
- 앞날: 압날(음·끝)→압날(비음화)

이렇게 분석한 것을 토대로 자음체계표를 보며 확인을 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③번입니다.

**(37) 문제 해설 - 정답: 4번**

이 문제는 주어진 단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저라면 ㉣가 맞는 선지부터 고를 것 같습니다. '있다, 쑥대밭, 앞장서다'가 가능하므로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어쨌든 연습하는 입장이니 주어진 단어들을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 넓디넓다: 널비띠널비따(된소리되기)→널띠널따(자·단)
- 높푸르다: 높푸르다(자·단)
- 늦깎이: 늦까끼(음·끝)
- 닭갈비: 닥갈비(자·단)→닥갈비(된소리되기)
- 쑥대밭: 쑥대밭(된소리되기)→쑥대밭(음·끝)
- 앞장서다: 압장서다(음·끝)→압장서다(된소리되기)
- 웁다: 읍다(자·단)→읍다(음·끝)→읍따(된소리되기)
- 있다: 인다(음·끝)→인따(된소리되기)
- 짓밟다: 진밟다(음·끝)→진뺨따(된소리되기)→  
   진뺨따(자·단)→진뺨따(된소리되기)
- 흙빛: 흑빛(자·단)→흑뺨(된소리되기)→흑뺨(음·끝)

정답은 ④번입니다. 참고로 '닭갈비', '웁다', '짓밟다', '흙빛'은 자음군 단순화의 순서가 발음값 도출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먼저 일어난다고 적었습니다.

**(38) 문제 해설 - 정답: 2번**

이 문제도 주어진 단어들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음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유형이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아셨겠죠? ㅎㅎ 그럼 분석을 해볼까요?

- 읽는:
- ㉠ 읽는: 익는(자·단-탈락)→잉는(비음화-교체)
  - ㉡ 서울역: 서울녁('ㄴ'첨가-첨가)→서울력(유음화-교체)
  - ㉢ 복잡한: 복잡한(된소리되기-교체)→복짜판(유기음화-축약)
  - ㉣ 깊숙이: 깊수기(음·끝-교체)→깊수기(된소리되기-교체)
  - ㉤ 읍다가: 읍다가(자·단-탈락)→읍다가(음·끝-교체)→  
   읍따가(된소리되기)

정답은 ②번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아마 나오는 게 또 나온다고 느끼셨을 것 입니다. 그렇죠? ㅎㅎ 근데 이걸 음운 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을 푸는 이유가 이런 것을 알고 자신이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뭘 더 공부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형태 파트도 열심히 해 봐요!!



## 참고 문헌

---

2013~2025년 모의고사 및 수능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집문당

신승용 외(2020), 『문법 하고 싶은 문법』, 역락

신승용 외(2021), 『더 문법 하고 싶은 문법』, 역락

이관규(2012), 『학교문법론』, 일인

이관규(2017),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역락

이문규(2016),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이진호(2016),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임지룡 외(2020),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저작권법 제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 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